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5월 개소

⌘ 금속법률원 | ⌚ 승인 2022.05.16 21:35

금속법률원 전국 법률지원 체계 구축 ... 광주·전남·전북 조합원 동지 가까이

금속법률원이 5월 9일 광주 광산구에 호남사무소를 열었다.

호남사무소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소속 조직의 법률자문, 소송 등 법규활동을 담당한다. 연락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 312-3호(쌍암동, 폭스존), 전화 062-412-2270, 팩스 062-412-2271 등이다

이상권 금속법률원 호남사무소장 노무사는 5월 9일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금속법률원이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에 이어 호남사무소를 열었다”라며 “금속법률원 전국 법률지원 체계 구축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호남사무소장을 맡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권 호남사무소장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북지부, 소속 조직의 투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적극 지원하고 옹호하겠다”라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고민하는 동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윤수빈 호남사무소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뭔지 모르던 철부지가 우연히 노조를 만나 투쟁하고 연대하는 모습에 반해 여기에 왔다. 영광이다”라며 “현장 가까이에서 조직화와 투쟁의 길에 일조하는, 동지들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법률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5월 9일 개소식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장과 여러 지회장,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금속법률원이 5월 호남사무소를 열었다. 금속법률원은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호남권 등 전국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상권 호남사무소장 노무사와 윤수빈 호남사무소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유준 노조 전북지부장 축사에서 “개소를 축하한다. 호남의 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연락하겠다”라면서 “전북지부 사업장들은 고소·고발·재판 등 사건대응과 일상 조합 활동에 관한 문의도 많다. 지회 현장과 더 가깝게 밀착해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양현주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자본가들은 법률전문가를 동원해 법을 노동자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며 “이런 시기에 문을 연 금속법률원 호남사무소는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현주 지부장은 “금속법률원 호남사무소가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한숨 쉬는 동지들에게 희망이 되고, 임금체불로 횡한 가슴 움켜쥐며 분노하는 동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활발한 활동을 주문했다.

김영옥 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장은 “금속법률원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면서 “법률구조와 법률대응을 넘어 금속노동자와 함께 자본과 사법 권력에 맞서 당당히 싸우자”라고 기원했다.

임길택 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장은 “금속법률원 호남사무소 개소를 축하한다. 금호타이어지회는 금속법률원 호남사무소와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금속법률원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